

21 [제자도의 대가]

디트리히 본회퍼

- 본회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정한 굴레’를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라고 외친다.
- 본회퍼는 고백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신학교를 이끌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귀국하여 독일로 돌아왔다. 본회퍼는 기독교 신앙이란 순교와 죽음에 준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1945년 4월 9일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했다. 그는 처형에 앞서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제게 이것은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 본회퍼는 나치 정권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제자도의 대가]를 펴냈다. 본회퍼는 독일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미 너무도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난이 하느님과 단절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고난은 고난으로써 극복되며 그 자체로 하느님과 영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본회퍼는 山上垂訓 전체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했다.

왜 [제자도의 대가]는 중요한가

- 본회퍼는 신학적 그리고 성서 해설적으로 대단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에게서 나온 심오한 지식이나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구체적 행동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행동해야 한다. 본회퍼는 기도와 자선은 비밀리에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 본회퍼는 예수에 집중하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 남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근본적인 형태의 신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위선자의 모습을 본회퍼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했음을 알고 있다.
- 값진 은총은 들판에 숨겨진 보물이다. 이를 위해 사람은 기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서 팔 것이다. 값진 은총은 상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 값비싼 진주다. 값진 은총은 그리스도의 위풍당당한 통치다. 이를 위해서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눈을 도려낼 것이다. 값진 은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제자들은 이에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 값진 은총은 두고두고 추구해야만 하는 복음이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선물이요, 반드시 두드려야만 하는 문이다. 은총은 값지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기에 그것이 은총인 것이다. 값진 은총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

는 것이다.

- 값진 은총은 하느님의 성소다. 값진 은총은 살아있는 말씀이자 기꺼이 줄거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값진 은총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자애로운 부르심으로서 우리와 직면한다. 값진 은총은 쇠약한 영혼과 회한에 찬 마음에 다가오는 용서의 말씀이다. 그러한 은총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굴레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값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굴레는 편하고,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기에' 은총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 우리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찬미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하게 동화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인류애'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향한 기독교적 사랑의 근거다. 모름지기 제자의 삶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야 한다.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야 한다.
-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전념하는 제자도로 행동하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저 없이 순종할 수 있다.